

인도 보험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개방과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김진익 수석연구원

요약

인도는 2026년 2월 보험업에 대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취리히·알리안츠·제네랄리 등은 소수 지분 합작에서 탈피하여 현지 디지털 인프라와의 결합, 국영은행과의 파트너십 등 인도에 대한 특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순이익 성장률·국영 LIC의 시장 지배력·루피화 약세 등 외국인 직접 투자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026년 2월 5일 SBSR법¹⁾ 발효로 보험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무심사 투자 허용과 함께 조건이 부과됨²⁾
 - 이행 조건은 ① 경영진 현지화 의무, ② 수령 보험료 전액 인도 내 투자 의무, ③ 국영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LIC) 지분 취득 상한(20%) 등임³⁾
 - 인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가 FY2020~21년 대비 FY2023~24년에 26% 감소한 가운데, 보험 침투율도 2022년 4.2%에서 2024년 3.7%로 하락하는 등 투자 위축과 시장 성숙 지연이 이번 전면 개방의 배경으로 작용함⁴⁾
 - Swiss Re는 인도의 2026~2030년 연평균 보험료 성장률을 6.9%로 전망하여, 주요 선진 보험시장을 상회하는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됨
- 글로벌 주요 보험회사들은 FDI 완전 개방을 전후하여 소수 지분 구조에서 탈피, 독자적 사업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음

〈표 1〉 주요 글로벌 보험회사의 인도 시장 진출 현황

보험회사	진출 형태	주요 내용	거래시점
취리히(Zurich)	지분 인수	Kotak Mahindra 일반보험 지분 70% 인수(약 6.7억 달러)	2024. 6.
알리안츠(Allianz)	합작법인 해소	Bajaj Allianz 생명·손해보험 합작법인 지분 26% 매각(약 26억 유로)	2025. 3.
	신규 합작법인	Jio Financial Services와 50:50 재보험 합작법인 설립	2025. 7.
제네랄리(Generali)	신규 합작법인	Central Bank of India와 생명·손해 합작법인 'Generali Central' 출범	2025. 6.

자료: Zurich Insurance Group(2024. 6. 19.); Allianz SE(2025. 7. 18.); Generali Group(2025. 8. 4.) 보도자료를 참조함

- 취리히 보험회사는 인도를 아시아태평양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수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소매·기업 보험 확대를 추진 중임⁴⁾
 - 인수 대상인 Kotak General Insurance는 최근 수년간 연 40% 성장을 기록한 고성장 법인으로, 취리히는 2024

1) SBSR법('샹카 비마 샹키 락샤', Sabka Bima Sabki Raksha)은 '모두를 위한 보험, 모두를 위한 보장'을 뜻하며, 2025년 12월 대통령 재가 후 2026년 2월 5일 발효된 인도 보험법 개정법임. 이는 보험업 FDI 한도를 74%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2) 손유영(2025),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한 철폐」,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FDI 감소 추세, 도농 격차, 침투율 하락 배경 및 수익성 과제 분석을 포함함

3) Skadden(2026. 2.), "India's Landmark Insurance Sector Reforms: 100% Foreign Investment Approved"

4) Zurich Insurance Group(2024. 6. 19.), "Zurich acquires majority stake in Kotak General Insurance"

년 8월 동사를 'Zurich Kotak General Insurance'로 리브랜딩하고 Uttarakhand주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 자조집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보험 공급 등 IRDAI의 공익적 보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 취리히는 “본사 디지털 역량과 리스크 관리 전문성으로 인도의 보험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알리안츠는 기존 소수 지분 합작의 사업적 한계를 인식하고 인도 최대 디지털 금융 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시장 전략을 전면 재편하였음⁵⁾

- 20년 이상 유지한 인도 Bajaj와의 합작에서 완전 철수한 뒤, 2025년 7월 인도 Jio Financial Services(JFSL)와 재보험 합작법인 'Allianz Jio Reinsurance Ltd.'(AJRL)를 설립함
 - 알리안츠의 25년 인도 재보험 경험과 JFSL의 JioFinance 앱(사용자 1억 명 이상)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여 인도 보험회사에 맞춤형 언더라이팅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두 회사는 재보험 합작법인에 더해 생명·일반보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JFSL은 AJRL에 147.5코로어(약 170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는 등 사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음
 - JFSL은 “인도의 보험 수요 급증을 인도 정부의 ‘2047년 전 국민 보험 보장(Insurance for All 2047)’ 과 연계하여 더 강하고 포용적인 보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 제네랄리는 국영은행을 새 파트너로 확보하여 농촌 중심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⁶⁾

- 2025년 6월 Central Bank of India(CBI)가 기존 파트너사 지분을 인수하며 교체가 완료되었고, 8월 'Generali Central' 브랜드를 출범함
 - 제네랄리는 CBI의 4,500개 지점과 8,000만 고객망을 활용하여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방카슈랑스) 비중을 3~5년 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 제네랄리는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인 '평생 파트너 27(Lifetime Partner 27)'과 연계하여 농촌·취약 계층 대상 포용적 보험상품 개발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 2월 인도 공정거래위원회(CCI)의 CBI 추가 지분 취득 승인으로 합작법인 지배구조 공고화가 진행 중임
 - 제네랄리는 “인도는 제네랄리에게 장기 전략적 시장이며, CB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억 명의 미보험 가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였다”고 밝힘

○ 인도 시장의 고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국 보험회사의 수익성 실현에는 의문이 있음

- 인도 상위 5개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보험료는 연평균 17%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순이익 성장률은 2% 미만에 그치고 있어, 외국계 보험회사도 동일한 수익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⁷⁾
- 국영 LIC는 정부 지급보증을 배경으로 신계약 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61~66%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 보험회사의 P/E 배율도 70~80배에 달해 외국 보험회사의 지분 인수 비용 부담이 큼
- 보험료 전액 인도 내 투자 의무는 수익의 본국 송환을 제한하고, 루피화 약세는 달러 환산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5) Allianz SE(2025. 7. 18.), “Jio Financial Services Limited and Allianz to form 50:50 reinsurance joint venture”

6) Generali Group(2025. 8. 4.), “Generali Group and Central Bank of India announce new brand identity for their joint venture”

7) McKinsey & Company(2024. 11.), “Steering Indian insurance from growth to value in the upcoming ‘techade’”